

- 어패류는 85℃ 이상 익혀 먹기
- 피부 상처 시 바닷물 접촉 금지
- 오한·발열·복통 땀 의심 신고



## 역간척·해양치유·탈석탄·3대위기...유럽에서 답을 구하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양승조 지사, 전격 유럽 방문  
5억 달러 유치 한 달 만에  
유럽서 당면 현안 해법 모색

네덜란드, 역간척 현장 찾아  
충남 연안하구 생태복원 접목  
지속가능 충남농업 해안 발전

독일, 스타트업 정책 귀 담고  
해양치유 프로그램 접목 엿봐

폴란드, 노인친화 노하우 공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변화 모색

유럽 방문 4일차인 21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주 경제개발공사에서 주 경제진흥청,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살폈다. 이어 함부르크주에서 우제둠으로 이동한 양 지사는 호텔과 병원이 결합된 쿠어메디텔을 방문해 독일의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메디텔 시설을 둘러보며 접목 방안을 고심했다. 도는 2025년까지 태안군 남면 달산리에 38만6499㎡ 규모의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소금과 염지하수, 해송, 모래, 해변길 등 자원을 이용해 해양치유센터, 곰솔 숲 치유공간, 스포츠 재활센터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22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양 지사는 “역사적 고난을 극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이 힘과 지혜를 공유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비엘코폴스카주의 노인친화사회지향 및 가족 중심 지원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사례와 정책을 공유했다.

23일에는 포즈난시 알츠하이머협회와 노인복지센터를 잇따라 찾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인증 받은 포즈난의 노인 복지 정책을 살폈다. 이어 비엘코폴스카주정사를 공식 방문, 주 의장과 주의회 전략 및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무실장 등과 회담 및 교류협의회를 진행했다.

유럽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코닌시로 이동해 지방정부의 탈석탄 및 에너지 정책을 듣고, 파르노프 소재 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서 코닌시 내 석탄화력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책, 신재생 에너지 도입 추진 등을 살피고 충남의 탈석탄 노력을 소개했다. 충남도는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충남의 현안에 접목하고 민선7기 핵심과제들의 완성도와 추진 속도를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4

/도정신문팀



충남에도 해양치유 선진 모델 접목 지난 21일 독일 우제둠 쿠어호텔을 방문한 양승조 지사(사진 왼쪽)가 시설 관계자에게 쿠어호텔 시설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5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한 달 만에 유럽 땅을 밟았다.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남호 역간척과 농업혁신, 탈석탄과 복지 정책,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에 접목하기 위해 유럽의 선형 사례를 찾아 나선 것. 양 지사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 동안 네덜란드와 독일,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했다.

19일 네덜란드를 찾은 양 지사는 질랜드주 휘어스호를 찾아 역간척 성공 사례를 살폈다. 연안 복원 현장인 오스터 캬트담과 마에스란트담 등을 찾아 도가 추진 중인 서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 생태도시 육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20일에는 바게닝헨대학 연구센터, 푸드벨리, 월드호티센터, 원예혁신기업 등 네덜란드 선진 농업 연구·산업화 현장을 방문,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바게닝헨대학은 농업·산림 분야 대학에서 세계 1위를 3회 연속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연구 업적과 산업을 자랑하고 있으며, 부속 연구센터는 농업 분야 세계 1위 대학 연구소로 꼽힌다.

## 취업자 ‘상승곡선’ 고용률 ‘전국 최고’

4월 기준 120만 9000명·64.5%

청년 실업률 줄고 고용 질 개선

올해 들어 충남도 내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용률이 제주도 를 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시근로자는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충남도는 최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120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8만 2000명에 비해 2만 8000명(2.3%) 증가한 규모다.

산업별 취업자 증가 인원은 ▲도소매·숙박음식업 2만 7000명(14.4% 증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2만 5000명(3.3%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 2000명(3.2% 증가) ▲제조업 1만 1000명(4.3% 증가)

▲광공업 1만 1000명(4.3% 증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6000~9000명가량 감소했다.

올해 도내 취업자 수는 또 1월 113만 6000명, 2월 114만 1000명, 3월 119만 2000명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월 고용률은 64.5%로 전년 동월(63.9%)에 비해 0.6%p 늘었다. 도내 고용률은 특히 전국 평균(60.8%)을 압도하며 제주도(68.1%)를 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8.9%에서 올해 69.6%로 0.7%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4월 3만 8000명에서 지난달 4만 명으로 2000명(3.9%) 늘며 실업률 역시 3.1%에서 3.2%로 0.1%p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 개선으로 구직 의사가 없었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며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1분기 청년고용률은 48.2%로 전년(42.5%)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11.7%에서 올해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p :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구분	전국 (증감)	충남 (증감)
경제활동참가율	63.6 (0.1)	66.6 (0.7)
(15~64세)고용률	66.5 (-0.1)	69.6 (0.7)
실업률	4.4 (0.3)	3.2 (0.1)

75%로 낮아졌다.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8000명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13만 8000명으로 2만 8000명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수가 7000명(3.3%) 줄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일·생활 균형(워라벨)’ 문화 확산 캠페인이 장시간 근로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훈 도 경제통상실장은 “올해 목표로 잡은 5만 8000개, 민선7기 22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노동청년과 041-635-3417

## 회색코벨소 두려움 없는 충남형 빅픽처

### 도정 톨아보기

유럽 현장에서 역간척 등  
노하우를 충남의 새 기회로

○...유럽 현장이 답이다

회색 코벨소란 코벨소가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도 보이지만 정작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간과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위험 요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다. 사방이 위험요인

이다. 충남도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저출산, 양극화, 일자리뿐만 아니라, 탈석탄, 역간척과 같은 환경과 생태문제도 다급하고 엄중하다. 철저히 ‘준비된 행정’만이 위험을 완충해 극복할 수 있다. 선진국가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의 이번 유럽 방문은 선진사례를 우리 실정에 접목시켜 궁극적으로 충남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여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역간척 성공사례를 보면서 전국 최

초로 추진하는 태안 부남호 역간척 그림을 상상하였다. 독일에서는 스타트업 정책을 귀담아 들으며 서해바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엿봤다. 폴란드에서는 탈석탄 정책을 담아내며 충남형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구상했다.

상상은 충남의 미래전략으로 설계되고 있다. 서해바다의 역간척은 생태자원으로 부활하고, 해양산업은 일자리와 관광객을 모으고, 탈석탄은 신재생에너지를 선점할 기회를 꿈꾸

는 것이다. 유럽에서 답을 구하고자 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담은 충남형 빅픽처다.

○...임산부 우대금리 출시

충남도는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이라는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임산부들의 예금이자율을 올리는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도는 농협과 ‘출산 친화적인 충남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임산부의 자유적금에 대해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기존 보다 금리가 0.7~0.75%포인트 높다. 충남형 배려문화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충남복지재단 설립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보다 체계적인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주목된다. 도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등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반기 출범하는 충남복지재단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보장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것. 재단은 맞춤형 지역 복지 정책과 현장지원의 플랫폼과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 안전망은 촘촘할수록 좋다. 그 중심체인 복지재단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 논산 돈암서원 ‘세계유산 최종 등재’ 위해 힘 모은다

‘한국의 서원’ 등재 권고 낭보 속 세계유산위 개최까지 중점 대응 사후 보존·활용 방안 마련 박차



돈암서원 전경

논산의 돈암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 권고’를 받은 가운데, 도가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까지 대응 체계를 중점 가동한다. 또 한옥체험마을 운영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등 등재 이후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대응 및 등재 후 보존·활용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등을 밝혔다.

돈암서원과 전북 정읍 무성서원, 대구 달성 동동서원 등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지난 14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를 통보받았다.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는 한국의 서원이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보편화됐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하는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문화재청, 전북·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논산·정읍·경주·안동 등 8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등재 이후 9개 서원에 대한 통합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42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록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각종 상황에 중점 대응한다.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후에는 ‘세계유산 협약’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위한 운용지침’ 등 국제 규범에 근거한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현재 운영 중인 ‘돈암서원 에 힐링캠프’와 ‘돈암서원 인성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옥체험마을과 예약관 등이 내년 문을 열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돈암서원 완충구역 내에 위치한 한옥 체험마을과 예약관 등은 1만 4224㎡의 부지에 16개 건축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연면적은 1847㎡이다.

도는 이번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유교 전문기관’이 될 충청유교문화원 문을 2021년 상반기 열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에 산재한 유교 관련 유·무형 자료 수집·연구와 교육 등을 위해 도가 지난 2013년 기본계획을 세워 논산시 노성면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나소열 부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돈암서원이 세계유산 반열에 오를 경우 도민 자긍심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민과 세계인들 사이 돈암서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1634년 사계 김장생(1548~1631)의 제자들과 지역 사림이 의해 건립된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은 강화 건축물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건축물의 현판과 목판, 장서 등은 예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특히 보물 제1569호로 지정된 응도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원 강당으로, 유교적 고례를 재해석해 완성한 뛰어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돈암서원에는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1574~1666)을 비롯해 제자 송시열(1607~1689), 송준길(1606~1672)이 배향돼 있다.

●문화유산과 041-635-3916

## 닥터헬기 ‘1000번째 환자’ 골든타임 지켰다

골든타임 사수...생존률 80%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특독’

‘하늘을 나는 응급실’인 충남 닥터헬기 1000번째 임무를 완수했다. 지난 2016년 1월 처음 날개를 편 지 40개월 만이다.

충남 닥터헬기는 지난 17일 오후 당진에서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및 대퇴동맥 파열 부상을 입은 50대 환자를 이송했다. 이 50대는 충남닥터헬기가 1000번째 출동해 이송(환자 수 1001명)

한 중증환자다.

그동안 충남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외상이 337명(33.7%)으로 가장 많고, 심혈관질환 178명(17.8%), 뇌혈관질환 158명(15.8%), 심정지 67명(6.7%), 기타 261명(26.1%)으로 집계됐다.

이송 환자 대부분이 중증 응급환자임에도 80%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은 이송 시간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닥터헬기를 통한 환자 이송시간은 평균 45분(최소 33분: 홍성읍헬기장, 최대 80분: 외연도)으로, 중상 후 응급치료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을 일컫는 ‘골든타임’을 지켜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진이 출동 현장에서부터 최종 치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직접 환자를 처치하는 것도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출동 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후송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보건정책과 041-635-4313

## 도정만평

설인호



## 임산부 우대 적금 ‘더 커진다’

도·농협, ‘임산부 우대 적금’ 출시 기본금리+우대금리 1.5% 적용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남도와 농협 상호금융이 힘을 모아 금리가 더욱 높고, 가입할 수 있는 점포 수도 크게 늘어난 ‘임산부 우대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4일 농협상호금융(이하 농협) 소성모

대표와 ‘출산 친화적인 충남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 협약에 따라 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적금을 내놓는다. 이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 도와의 협약에 따라 제공 중인 우대금리(정기적금 0.75·정기예금 0.8%) 상품보다 금리가 0.7~0.75%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적금은 1년 만기이며, 월 납입 한도는 자녀(태아) 1인 당 50만 원이다.

가입 점포는 도내 485개 농·축협(지역농협)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임산부들은 지난달 말 기준 NH농협은행에서 ▲예금 170건 34억 9600만 원 ▲적금 104건 7200만 원을, KEB하나은행에서는 ▲예금 31건 1억 8800만 원 ▲적금 79건 1300만 원을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33

## 천안 광서영 씨

### ‘생활원에 환경부장관상’

천안 광서영 씨(사진)가 지난 22일 청주 농업기술센터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생활원에 중앙경진대회’ 접시정원 분야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현장경진대회에서는 아이디어정원, 접시정원 등 2개 분야에서 전국 30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도 대



표로 나선 광서영 씨는 접시정원 분야에서 ‘자연에서의 소확행’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환경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업기술원 041-635-6174

##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⑬

일 마무리가 흐리멍덩한 시나브로와 흐지부지 사이

봄이 무르익은 5월이다. 아카시아 향기 속에 푸른 바람이 인다. 뿌영계 시야를 흐리던 황사도 미세먼지도 문득 스러졌다. 제법 여름처럼 피약벌이 따가운 한낮은 저녁 시간을 한참이나 뒤로 밀어냈다.

봄이 되면 아이들은 나른해진다. 봄기운이 가득 몸에 내리면 아이들은 펄펄 뛰어다닌다. 낮이 길어지니 놀

## 시적부적, 시적잡다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공부나 나른하다. 봄에 취해 한낮을 뛰던 아이들은 저녁 시간이 피곤하다. 책을 보지만 밤 시간은 싱숭생숭하다.

생각이 여러 갈래로 번지니 집중이 안 된다. 아침이 일찍 오고 잠자리는 깊지 못하다. 봄은 그렇게 아이들의 학습을 흩어놓는다.

나는 학원을 한다. 이때쯤이면 아이들은 학원을 끊는다. 6월로 가는 봄날은 놀기에 좋은 만큼 공부하는 기 싫다.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날들인데 공부는 안 되는 계절이다.

책을 보기가 싫증나고 효과는 표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 봄도 시적부적 깊어가고 아이들은 무더운 여름을 버텨갈 것이다.

‘시적부적’은 표준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충청말이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시나브로’와 ‘흐지부지’의 충청 방언으로 소개하고 있다. ‘시나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란 뜻을 지닌 말인데, 웬지 충청말 ‘시적부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흐지부지’는 ‘일을 흐리멍덩하게 마무리하

는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서로 비슷하지만 ‘흐지부지’는 보통 충청도에서 ‘시지부지’라 하니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다음 국어사전과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일의 마무리를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을 뜻하는 전라도 방언이라 소개하고 있다. 보통 충청도 사람들이 ‘시적부적’이라 쓸 때는 이 뜻 풀이가 맞다. 방언조사가 정밀하지 못해 전라도방언으로 알려진 것이다.

“시적부적 공부할라만 강 집어쳐(흐리멍덩하게 공부를 하려면 일찌감치 그만 뒤).”

“시적부적하덜 앉구 죽어라 애쓰든 널덜버덤 앞스년 겨(흐리멍덩하게 하

지 않고 죽어라 노력하면 남들보다 앞서는 거야.)”

“시적잡게 할라만 애저녁이 집어쳐야(흐리멍덩하게 하려면 일찌감치 그만 뒤).”

5월이 간다. 여름은 더 공부하기 어려운 계절이다. 그럴 때 아이들을 지켜주는 건 규칙적인 학습 습관이다. 생각과 몸이 흐트러지면 세월은 시적부적 우리 곁을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 한국축구센터 560만 충청인이 해냈다

천안 우선협상대상 1순위  
입지·인프라·열정 최고 평가  
도비 지원 확약 효과 '톡톡'  
도, "최종확정 때까지 최선"



축구종합센터 예정 부지

대한 관심과 열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충남도가 축구센터 유치에 대해 충분한 도비 지원을 약속하면서 축구협회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와 천안시가 NFC 후보지로 제시한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 일원은 경부고속도로 북천IC와 불과 7km 떨어져 있고, KTX와 수도권 전철·고속도로 등을 통해 국내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신축 NFC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500억 원을 투입, 33만㎡ 안팎의 부지에 축구장과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숙소 및 식당,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새 NFC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는 1



축구종합센터 배치 계획도

조 4000억 원에 달하며, 고용 창출은 4만 명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및 세계 축구 메카를 조성해 해당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스포츠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등의 효과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소열 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우선협상대상 선정 관련 입장문을 통해 "560만 충청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결과로 NFC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NFC 천안 확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우선협상대상 자치단체와의 협상을 거쳐 다음 달 NFC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짓는다.

●체육진흥과 041-635-3866r

# 도 소방, 본격 '폭염대응'

폭염구급대 지정·장비 구비  
열탈진 등 질환 예방 만전

충남소방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폭염 대응 구급 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도내 119구급차 101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하고,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 등 9종의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확보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른 구급 출동으로 폭염구급대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78대의 소방펌프차에도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비치해 폭염 환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도 종합방제센터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의 증상환자별 응급처치 방법, 도내 폭염대피소 운영, 치료 가능한 병원 등을 안내하는 등 폭염 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오식 119광역기동단장은 "폭염 경보와 주의보 발령 시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열탈진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119광역기동단 041-635-5734



구급대원이 얼음조끼를 점검하는 모습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자 모집

기초 신규 3곳, 재지정 1곳  
신청 시 3년간 4000만 원 지원

충남도는 다음달 4일까지 2020~2022년까지 3년간 도내 기초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도내에는 광역지역 환경교육센터인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비롯해 기초지역환경교육센터 5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는 올해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사업 수행 기관을 새로

게 선정한다.

도는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지역환경교육센터 3곳을 새롭게 운영키로 하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당진·태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응모 자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중 설립 목적에 환경 교육이 포함된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민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환경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환경 교육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공모 접수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교육 시설 및 기자재 현황,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6월 4일까지 신청기관 해당 소재지의 시·군 환경교육담당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사업비 4000만 원(도비2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v.kr)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도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2712

# "화재 대비 안전을 나눕니다"

수급자 가구 2만 7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 나눔'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안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2만 715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했다.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보급이 완료되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본부가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 무상 보급에 나선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사상자 331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20명으로 전체 화재사상자의 36%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로 3월 홍성군 결성면 한 주택에서도 화북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초기에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등 실제 활용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화재대책과 041-635-5593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 주력

3조 3445억, 110% 초과 목표  
일자리·SOC 등 중점 추진

충남도는 지난 22일 어려운 고용 상황 및 경제 불안 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또 도와 시·군 부서별 추진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했으며, 추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도 실시했다.

현재 도는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5조 2670억 원 중 행정안전부 집행 목표액 3조 3445억 원의 '11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상반기 집행 부진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 추진 상황 집중 점검을 통해 부진 사업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산담당관 041-635-3156

# 캐나다산 씨돼지 통해 우수 종돈 공급 박차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신용욱)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돼지(원종돈) 생산을 위해 캐나다산 씨돼지 35마리를 입식했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캐나다산 씨돼지를 통해 산육형질이 좋고, 새끼를 많이 낳는 강건성 뛰어난 우수 씨돼지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엔 들여온 캐나다산 씨돼

지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2품종으로, 혈통·외모·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종돈을 선발했다.

또 최근 해외에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에서 사전 격리와 개체 검역도 실시했다.

신용욱 도 축산기술연구소 소장은 "종돈 교배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한 우수 씨돼지를 도내 양돈농가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축산기술연구소 041-635-7803

# 충남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자치분권

주민참여로 우리 삶을 바꿉니다②  
충남형 주민참여 자치분권

지난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 하는 임무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18.9. 이하 종합계획)'과 '자치분권 시행계획

('19.2. 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을 실천과제로 담았다.

곧 국가권한(중앙권한)을 하나의 단위 사무가 아닌, 하나의 기능으로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 증진·지역산업 육성·농촌주택 개량·가축전염병 예방 등과 같이 현직성이 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사무'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방 이양을 희망하므로 이러한 의견이 투영되어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이 이뤄진다.

그러나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든 국가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수는 없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하거나, 물가정책·금융정책·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로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인 '국가사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종합계획과 실천계획에는 지역 실정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이양도 계획하고 있다. 즉 충남의 실정과 역량이 맞는 국가권한 이양을 요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면밀하게 검토하여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 지방자치분권 기본계획'도 수립되었다. 이제 남은 3년 동안 자치분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의 모든 구성원들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충남 맞춤형 이양'에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방이양에 따른 합리적인 행·재정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을 바탕으로 '충남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충남형 주민참여 자치분권 실현을 기대해 본다.

/문현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일류기업 '우뚛'

**스타기업** ⑦그린폴리머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소재 생산  
2012년 고양시에서 천안 이전  
신제품 '메가본드'로 시장 선점



김윤돈 대표이사가 자사생산 플라스틱 소재를 들여보이고 있다.

그린폴리머(대표 김윤돈)는 천안 직산읍에 위치한 플라스틱 소재 생산업체다. 1996년 창업 이후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 2012년, 고양시에서 현재의 위치로 공장과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주력 생산제품은 자동차 부품 중 머드가드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소재다.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대하 등 1차 석유화학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과 안정적인 경영에 힘입어 2014년 111억 원, 2015년 151억 원, 2017년 127억 원 등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김윤돈 대표는 “지난해 예기치 못한 중국발 사드의 여파로 매출이 절반 정도 가까이 줄었지만 올해는 정상궤도에 올랐다”며 “올해의 경우 1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폴리머 경영이념은 ‘3PRO(professional, proactive, prosperity)·5GP(Good partnership, Good product, Good price, Good passion, Good person)정신’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3억 원을 투자해 생산현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주말 및 휴일에도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한편

주도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영 이념을 토대로 생산시스템 확충,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제품 사용화가 시작되면 2020년까지 400억 원대의 매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린폴리머는 충남의 스타기업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제품 불량률이 80% 이상 감소하며 생산성이 놀랍도록 향상됐다.

20억 원을 들여 압출기와 자동제어기를 증설한 것도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윤 대표는 설명했다.

신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7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4개의 정부과제를 수행 중이다.

특히 신제품으로 개발한 메가본드(기능성 필름용 소재)는 그린폴리머의 이른바 ‘미래 먹거리’다. 5G 안테나 전용 소재로 개발된 메가본드는 디지털인쇄 라미네이션용 소재로 본격 판매를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공동으로 GI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제품 사용화가 시작되면 2020년까지 400억 원대의 매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린폴리머는 충남의 스타기업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우뚛기업, 메인비즈 우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현대자동차 SQ 인증,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등 그간 그린폴리머가 획득한 각종 인증과 수상이 회사의 경쟁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윤돈 대표는 제23회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우수기업인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장, 충남벤처협회 중소기업장관상,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원장 표창장 등을 수상하며 그간의 공헌을 인정받기도 했다.

그린폴리머의 모토는 ‘행복한 회사’다. 김윤돈 대표가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문제점 해결에 나서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김 대표는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근로자 한명 한명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 플라스틱 일류 기업으로 우뚛서 지역사회 공헌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khdt226@korea.kr

## 道 수산식품, 세계 유명바이어 주목

상해서 126만 달러 수출 계약  
조미김·식물소금 관심 집중

충남도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상해중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19년 상해식품박람회(SIAL China)’에 참가해 1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세

계 각국에서 참가한 업체는 4300여 곳으로, 약 11만 2000여 명이 이번 박람회를 찾았다.

도내에서는 조미김·스타김 6개사, 소금 1개사 등 7개 수산식품 기업이 참가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사흘간 7개 업체 총 상담액은 944만 2000 달러이며, 계약(추진)금액은 21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동양수산 외 3개 업체는 현장에서 126만 달러 계약이 성사돼 충남 김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더함초에서 생산한 식물소금의 경우 세계 최초 식물원료 기능성 소금 제품으로 많은 바이어의 주목을 받아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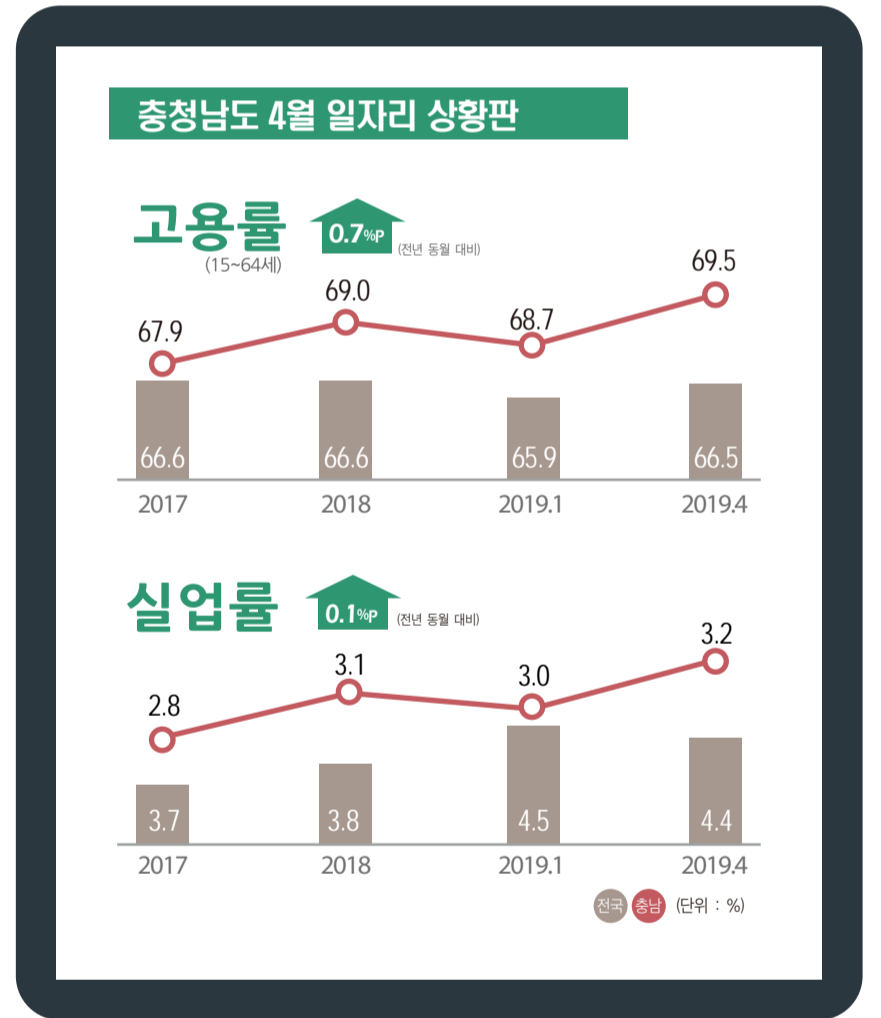
도 관계자는 “상해식품박람회 참여로 도내에서 생산·제조한 우수 수산가공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 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참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 수산식품의 홍보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충남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하반기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현지 판촉행사 개최 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수산산업과 041-635-2782



상해식품박람회 당시 충청남도 부스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의 모습



## 우수 스타트업 성공사례 '한 자리에'

스타트업 혁신가의 날 개최  
투자상담·제품시연 등 지원 '독특'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2일 '제2회 스타트업 혁신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 우수인증·보육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이 교류하고, 아이디어 피칭 프로그램인 100번가의 특을 통해 우수인증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 참여한 우수기업 5팀이 투자설명회를, 또 다른 우수기업 5팀은 제품시연을 하는 한편, 사전 신청을 통해 8개사에 대해 보육기업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또한 12개사의 농촌융복

합 제품 품평회를 개최하며 스타트업 기업의 활동을 지원했다.

충남센터는 지난 2015년 '창의·행복·성공에너지의 나눔터,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개소한 이래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체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는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인 '100번가의 특'을 4년째 운영 중이며, 작년부터는 보육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좋은 상품을 보유한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품평회에는 천안·아산에 소재한 우수농수산물 가공업체 13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유통전문가의 상품평가 및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코칭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분야 유통전문가(한화 갤러리아, 카카오 메이커스, 농협 하나로마트, NS 홈쇼핑,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 전문식품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은 우수업체에 대해 제조시설·품질관리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향후 한화 갤러리아 '아름드리숍'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센터는 소규모 창업 업체 가공제품 중 시장성 있는 우수상품을 발굴, 대기업유통업체 입점 등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품화 개선과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13

## 미세먼지 저감, 중소기업도 '함께'

방지시설·측정기기 지원  
설치비 80%까지 보조

충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 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등을 지원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2020년 4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시행되는 만큼,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은 올해 국가 추경을 통해 확보된 미세먼지 대책 사업비를 통해 지원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이번 지원·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독려하고, 하향적 지도·점검 등 사후적 대책과 상향적 조치·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보전과 041-635-4453





네덜란드

2일차(19일)

▶ **일정**  
질랜드주 휘어스호 역간척 현장  
- 델타 프로젝트 성과와 한계

▶ **도정 활용**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



독일

4일차(21일)

▶ **일정**  
① 바게닝겐대학교 및 농업연구센터  
- 농업 분야 세계 1위 대학연구소

② 자이홀란트시 월드호티센터  
- 원예산업의 실리코밸리

▶ **도정 활용**  
①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 미래 모색  
② 원예산업 발전 · 농가경영향상 청취



폴란드

5~6일차(22~23일)

▶ **일정**  
비엘코폴스카주 사회복지 컨퍼런스  
- 도 자매결연 자치단체 정책 청취  
- 주도 포즈난시,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획득

▶ **도정 활용**  
도 3대 위기(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극복 방안

7일차(24일)

▶ **일정**  
코넨시 에너지 전환 정책 간담회  
- 유럽 최대 아연 채굴탄광 위치  
갈탄 · 아연 활용 전력 생산 95%

▶ **도정 활용**  
탄소 배출 감소,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  
수소 에너지원 전환 등

# 해양생태 활용·석탄 에너지 전환...머리 맞대고 '충남의 길' 모색

## 충남, 유럽에서 답을 엿보다

지난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숨 가쁜 유럽 일정을 끝내고 돌아왔다. 네덜란드-독일-폴란드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해 도의 역점 정책 추진에 길잡이가 될 선진 사례를 두루 살피고 온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우의를 재확인하고 경제를 비롯해 농업·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주요 순방 일정을 따라 도정 현안 및 과제 해결을 위한 벤치마킹 가능성을 살펴본다.

### ■ 네덜란드

#### 국가 주도 '델타프로젝트' 부작용 해수터널 뚫어 생태복원 '성공'

#### 식량 증산 위한 부남호 간척 역간척으로 '해양생태 신모델'로

18일 유럽 출장길에 오른 양승조 지사는 1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첫 일정은 네덜란드 질랜드주.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로 이뤄진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홍수와 해일 피해를 겪어 왔다. 네덜란드의 역사를 '물에 대항한 전쟁의 역사' 할 만큼 홍수와 해일을 빈번하게 겪었지만, 1953년의 대홍수로 1800여 명이 희생되고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낳았다.

네덜란드는 이를 계기로 1958년부터 1997년까지 델타 프로젝트를 진행, 질랜드주가 위치한 남서부 일대에 155억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 댐과 방조제를 건설했다. 양 지사가 방문한 휘어스호 역시 1962년 재난·해일 방지, 담수 확보,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하구 최남단을 막아 건설한 호수였다.

그러나 댐 건설 후 40여 년 간 해수유통이 막혀 갯벌 훼손, 생태자원 고갈, 수질 악화가 지속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2004년 2개의 해수유통 터널인 카체홀로를 뚫어 다시 바닷물을 유통시켰다. 단 3개월 만에 휘어스호의 수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갑각류와 어패류가 돌아 왔으며, 관광객 역시 크게 늘어 지역경제도 활력을 띠게 됐다.

양 지사는 바로 이곳에서 천수만 부

남호의 미래를 모색한 것. 지난해 8월 정부가 개최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성장회의'에 참석해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육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도는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갯벌이 드러나 기수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조제 구조 변경 ▲해수유통구 확장 및 통신문 설치 ▲부남호 하류·천수만 상류 오염도도 준설 ▲부남호 상류 생태하천 조성 ▲하천 유입 생활하수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한 생태환경 회복 ▲복원된 해양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해양신도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방문 3일차인 20일, 양 지사는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코자 농업 분야 세계 1위 대학인 바게닝겐대학교의 농업연구센터와 자이홀란트시 월드호티센터(세계원예센터)를 찾았다. 바게닝겐대 농업연구센터는 2016년 기준 2억 9900만 유로가 투입, 480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며 ▲식품 및 식품 생산 ▲생활환경 ▲건강·생활방식·생계 등 세 영역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월드호티센터는 원예산업의 실리코밸리를 목표로, 원예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향상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양 지사는 이들 연구소 방문을 통해 농업인구의 고령화·영세화 등에 대응해 충남 농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구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독일

#### 직접 지출 400억\$·고용 45만 명 전 세계 해양치유산업 선도

#### 태안, 해양치유단지 조성 시

#### 소금·염지하수·해송 등 자원 활용

충남도과 태안군이 태안 남면 일대에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 지사는 4일차 일정으로 해양치유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한 곳인 독일을 택했다. 독일 우제돔섬 쿠어호텔을 방문한 양 지사는 병원과 호텔이 결합한 형태의 '메디텔'로 운영되는 쿠어호텔의 시설과 치유 프로그램을 살폈다.

해양치유는 해양의 기후·지형·해수·해초 등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양치유단지에는 치유와 의료, 연구, 숙박 등의 인프라가 밀집된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단지에서의 직접 지출 비용이 400억 달러가 넘고 고용 인력도 45만 명에 달하는 등, 미래 유망 성장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쿠어호텔은 일반 투숙객과 환자를 위한 분리된 시설에 의사와 진료실을 갖췄다. 특히 지하 500m 소금물을 이용한 호흡기치료, 화산 진흙을 활용한 광고치료 등이 특징이다.

도가 조성 중인 태안의 해양치유단지는 2017년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것으로, 대상지 면적만 38만 6000㎡가 넘는다. 태안 치유단지는 소금을 주자원으로, 염지하수·해송·모래 등을 부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해양치유센터, 빌라촌, 곰솔 숲 치유공간, 스포츠 재활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양 지사는 이날 함부르크주를 방문해 경제 관련 기관의 관계자를 만나 주의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소개받고 도정에서의 접목 방안을 고심했다. 도가 추진 중인 스타트업과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도출될지 주목된다.

### ■ 폴란드

#### 비엘코폴스카주 사회복지 컨퍼 3대 위기 극복 '머리 맞대'

#### 코넨시, 탈석탄 전환 현황 듣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 적극 제안

양 지사는 유럽 일정을 폴란드에서 마무리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차례로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포즈난시와 코넨시를 방문, 자매결연을 돈독히 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폴란드 일정 첫째 날인 22일엔 비엘코폴스카주 포즈난시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 컨퍼런스'에 참석, 양 주-도의 정책과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영 지사는 "양국이 민주화와 경제성장, OECD 가입이라는 역사의 궤를 함께한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도 나란히 직면해 있다"며, 충남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서로 간의 지혜 공유를 제안했다.

이어 ▲임산부 전용차량 개설 ▲충남 아기사당 도입 ▲3대 무상교육 실현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정책,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 멘토링 실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정책, ▲장애인 콜택시 광역지원센터 운영 ▲단기·중간보호 지원 확대 ▲영세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도입 등 '더불어 잘사는 충남' 정책을 소개했다.

폴란드 일정 2일차인 23일, 양 지사는 마렉 위즈니아 주지사의 초청으로 비엘코폴스카주청사를 공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두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 우의를 재확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비엘코폴스카주는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도인 포즈난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 가입을 인증 받는 등 충남도가 벤치마킹할 만한 여건과 사례가 다양하다. 양 지사는 포즈난 알츠하이협회와 노인복지센터를 잇따라 방문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했다.

양 지사는 24일, 비엘코폴스카주 코넨시를 찾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현황을 모색했다. 폴란드는 자국내 에너지의 80% 석탄화력발전으로 충당하는 석탄 강국이지만, 석탄화력 시설이 노후해 효율성 저하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코넨시는 갈탄과 아연을 이용한 전력 생산 의존도가 95%를 상회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화석연료 의존도 저감을 위한 노력에 직면해 있다. 양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의 석탄화력 현황과 탈석탄을 위한 도의 노력을 소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유럽행에서의 선진 우수사례와 대응책을 도정 현안에 접목해 민선 7기 2년차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통상과 041-635-3364 /손유진 syj0319@korea.kr

#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저출산 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국민이 직접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하는 참여의 장

## 저출산 극복에는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가입니다

2019. 6. 26.(수) 10:00-17:00

### 덕산 리솜 스파캐슬

전문가·도민 1000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부 장관장석주  
국립민방  
도의원  
시장·군수  
충남계회계산업계  
향토·신앙부흥인사 60여명인부모임

1부 개회식  
정책특강  
메뉴토크  
저출산 극복 공동 추진 협약식

2부 500인 정책토론

3부 도지사(와)토론회  
폐회식

충청남도





# 탈석탄 에너지 전환,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양 지사, “기후변화 강력 대응”  
그린피스·녹색성장위와 협조 굳혀  
국내·아시아 지방정부 선도모델로



양승조 충남지사, 그린피스 제니퍼 리 모건 사무총장, 김정옥 녹색성장 위원장(왼쪽부터).

충남도가 ‘석탄발전 기지’에서 ‘에너지 전환 중심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5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제니퍼 리 모건 사무총장과 김정옥 녹색성장 위원장을 만나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를 위한 현안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향후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도의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대응 계획을 소개하고, 국가·국제적 차원의 지지와 참여, 역할을 당부했다.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도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2026년까지 총 30기(전국 60기) 중 14기를 단계

적으로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 실행·자문팀 구성 ▲국회토론회 개최 ▲중부·동서발전 현장방문(3회) ▲전력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도지사-주한영국·캐나다 대사 간담회 등을 추진,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 1·2호기 조기폐쇄(2020년) 등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 중단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 지사는 “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증대에 힘쓸 것”이라며, “충남의 탈석탄 사례를 세계인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리 모건 그린피스 국제사무총장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충남의 노력을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국제 에너지·기후 컨퍼런스를 통한 국내외 정책연대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의 탈석탄 정책을 선도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니퍼 리 모건 사무총장과 김정옥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내 탈석탄 정책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며 “타 시·도 및 아시아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과 041-635-3456



제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16일 서천군 종합운동장에서 2만 7000여 명의 도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가족행복도시 서천에서 피어나는 서천의 꿈, 하나되는 도민!’이라는 구호 아래 성대하게 막을 올린 이날 개막식에는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15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서천군 제공

## 비브리오 패혈증 ‘조심하세요’

어패류 85℃ 이상 조리 섭취  
피부 상처 시 바닷물 주의

충남 서해안 지역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 환자가 처음 발생해 8~9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비브리오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 바닷

물에 접촉하면 피부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간 기능 저하나 알코올중독,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주로 발병한다. 감염되면 1~2일 정도 짧은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오한·발열 등 전신증상과 설사·복통·구토·피부병변 등이 동반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85℃ 이상으로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31

## 공공서비스 강화로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  
충남 행복주택 추진 등  
수요·체감 고려한 정책 당부

충남도가 지난 15일 2019년도 제2차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중점 추진 업무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간 소통과 정보 공유 확대, 당면 현안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4개 공공의료원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병원 경영 및 유동성 대책 방안 마련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기숙사 건립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충남문화재단 등 4개 문화체육 관련 기관은 ▲도민 누구나 소외 없는 문화 예술교육사업 추진 ▲제66회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 준비 ▲‘함께하는 행복 걷기’ 사업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을 비롯한 4개 교육 기관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부금 조성 ▲충남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준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전자 교육을 중점 과제로 내놨다.

충남개발공사 등 5개 경제기관에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추진 ▲기업지원 전산(DB)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보증 신

설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실행 ▲천안아산 역세권 중심의 콘텐츠 창업 벨트화 등을 보고했다.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3개 연구기관에서는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충청유교문화원 국비확보 방안 모색 ▲성 격차 지수를 줄이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0개 공공기관은 의료·문화체육·교육·경제·연구 등 각 영역에서 도정의 최일선이자 도민과의 접점”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담당관 041-635-3150

## 재난취약계층 안전

교육 통해 “스스로 지켜요!”

충남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한서대 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충남도민 안전문화대학’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선도적인 재난안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실시되며, 장애인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보호자 및 시설 종사자와 연계 진행된다. 첫날인 지난 16일에는 천안 서부장애인 복지관 및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자 및 시설 종사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재난상황 관련 이론 교육이 병행됐다. 이어 완강기 탈출 등 체험위주의 교육과 소방본부의 이동식체험차량 추가지원으로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안전정책과 041-635-5624

## 간추린 도정



### 3색 관상용 벼 ‘개발 성공’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잎이 분홍색·자색·흰색을 띤 관상용 벼 신종 3종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신종 3종은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전국 최초 관상용 벼 ‘충남1호’를 유색미 수집자원에 교배해 선발했다.

분얼경의 잎은 진분홍색과 분홍색, 흰색으로 일부 줄무늬를 가졌으며, 7월 하순에 피는 이삭은 분홍색, 검붉은 자색을 나타낸다. 분홍색·자색 등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신종 3종 이삭은 논 그림이나 논 글씨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축제장에서 경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다양한 색을 가진 관상용 벼를 통해 쌀과 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쌀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050

### 금강휴양림 ‘숲속 초대’

충남도 금강자연휴양림이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등에서 숲과 함께 하는 힐링 및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근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일원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 등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수목원 내 숲길에는 단풍나무와 목련나무 등에서 풍성한 잎이 돋아나 관람객의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금강자연휴양림은 이달부터 매표소를 이전하고,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관람객 입장 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성수기 및 주말에 차량 대기 정체로 교통사고 위험과 입장 시간 지연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41

### 마을기반형 진로체험 선배

충남도는 지난 17일 천안 신부문화거리에서 도내 청소년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마을기반형 진로체험 문득(聞得)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도가 주최하고 충남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진로체험 청소년 문득 페스티벌로 나눠 진행됐다.

야외광장에서 열린 ‘문득(得) 페스티벌’은 지역사회 상점을 진로체험 현장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각 상점의 주제와 연계된 진로 특강과 체험활동이 함께 이뤄지면서 청소년에게 흥미와 직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공선수, 성교육전문가, 승무원, 청소년상담사, 요리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탐색할 진로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정책관실 041-635-2045

### “우리 안의 금연본능 깨워요”

충남도는 지난 22일 당진시와 함께 당진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이라는 구호 아래 펼친 이날 행사에서는 체험부스를 통해 호기 일산화탄소 및 간이폐활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금연 실천과 유지를 돕기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

닉 등록 등을 진행했다. 또 금연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자 폐 모형과 타르 축적 모형 등 흡연 폐해 관련 자료를 전시하며 금연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행사 이후에는 당진시와 함께 공중 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표지 부착,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2653

### 미래 전문어업인 육성한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보령 및 경기도 등지에서 20~22일 전문 수산경영인 육성을 위한 2019 신규 어업인후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3월 선정한 신규 어업인후계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교육에서는 특강과 수산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교육 첫날인 20일 보령 웨스트피어에서 실시한 특강에서는 ▲수산업 경영인의 역할 ▲육성사업 추진 및 융자금 집행절차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21~22일에는 경기도 안산·양평 소재 친환경 패류 가공공장,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등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업과 가공업, 내수면어업에 대한 현장 견학 시간을 가졌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7



### 자원봉사 교육, ‘우리가 전문가’

충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9주에 걸쳐 진행된 ‘자원봉사 감사양성 교육 과정’에서 총 4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감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의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해 보는 한편, 직접 강의안을 만들고 시연해 보면서 강의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자원봉사의 이론과 철학을 비롯한 기초 소양을 겸비하면서 자원봉사 교육 전문가로 거듭났다. 자원봉사 교육이 필요한 학교나 기관, 단체는 도자원봉사센터나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교육을 신청, 전문 강사를 파견해 교육을 실시한다.  
●충남자원봉사센터 041-635-1365





# 충남복지재단 설립 본궤도 올랐다

9월 출범, '복지수도 충남' 탄력  
'충남형 복지' 구축 중추 기대  
대표 등 임원 공모 본격 돌입

충남도민의 숙원인 충남복지재단 설립이 대표이사 등 임원 선발 절차에 본격 돌입하며 본궤도에 올라섰다. 계획대로 추진하면 다음 달 이사회 구성, 7월 허가 및 설립 등기, 8~9월 직원 선발 등을 마치고, 9월 출범과 함께 도의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뒷받침하게 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충남복지재단은 민선7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으며 설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도 출연기관으로 출범하게 될 충남복지재단은 2실 4팀 24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사업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분석·진단, 현장 정책 지원 ▲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을 위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충남사회복지지원단 및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도는 최근 충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임원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22일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충남복지재단 임원은 상근 대표이사 1명, 비상근 이사 5명, 비상근 감사 1명 등 7명이다.

충남복지재단을 대표하며 재단 업무와 재정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관련 단체 또는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복지 분야 전문성, 비전 제시 능력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건전한 윤리관, 청렴성과 솔선수범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응모할 수 있다.

이사 응모 자격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법인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등이며,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감사부서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에서 감사업무 담당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응모 가능하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0일 까지이다.

대표이사와 이사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고, 감사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1

## 어린이집 석면 관리 사각지대 해소

430㎡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22일부터 석면조사 의무화

충남도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분석되지 않았을 뿐더러, 석면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

을 받아왔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석면조사가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시·군에 확정·송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 외에도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으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치(0.01개/㎤) 초과 시에는 환경부 고시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기존 어린이집 중 이미 석면조사를 실시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 인정신청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병행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를 널리 홍보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보전과 041-635-4451

##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고개를 가우뚱하리라. 은하철도 999는 동화 같은 느낌을 주는 만화 같지만, 매우 철학적이고 어려운 주제를 에피소드마다 부여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지향점이 되는 메텔이 있었다.

“은하철도 999는 미완성이다. 1000이 되면 어른이 된다는 의미이다. 은하철도 999의 어린 ‘철이’에게는 ‘메텔’이 보이지만, 1000이 되는 사람에게는 메텔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 만화를 즐겨보던 아이들은 지금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자기 발표 시간에 내 꿈은 선생님이라며 학교에서 씩씩하게 외치던 꼬마 아이는 현재 그 꿈을 이뤘을까, 아니면 혹독한 취업난의 문을 뚫기 위해 장수생이던 기차를 타고 있을까? 우리 가끔 스스로에게 자문한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에 대해 프랑스 화가 고갱이 던진 물음에 우리는 섣뜻 답을 하기 어렵다. 아니 함부로 답하기 두렵다.

한때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나만의 메텔은 이미 나의 곁을 떠난 지 오래고, 우리 성장통을 겪으며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다.

사람에 따라 아직 미성숙이란 수

식이 가 붙을 순 있겠지만, 나름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고 자부하고 싶다.

물론 그 와중에서 실패와 좌절도 같이 배웠다.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철이’는 여행 도중에 술한 흥터를 얻었다. 심지어 이를 자랑하기까지. 물론 모두가 이를 멋지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후에 다른 이에게는 제법 이아깃거리가 될 것이다.

“나는 청춘의 환영, 젊은이에게 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을 여행하는 여자. 메텔이라는 이름이 철이의 추억 속에 남겨진다면, 그걸로 족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지금껏 돌아올 수 없는 기차를 타고 온 그대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누군가의 메텔이 되어줄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당신이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등을 두들기며 말해 줘라.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야”라고.



유재열  
충남도청  
행정자료실 사서



"충남형 행복주택과 함께 가족의 꿈을 키우세요!"



\*해튼 '남이네 가족'은 도민과의 도정 소통을 위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 기획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서들의 서재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지금의 30대 이상 연령층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만화 주제가 ‘은하철도 999’. 흔히 이 작품을 언급하게 되면 떠오르는 생각의 파편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검은색의 러시아식 겨울 패션인 털모자 샤프카(шапка)와 털 코트 슈바(шуба)를 입은 신비스러운 여성 ‘메텔’이란 캐릭터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당시 메텔은 술한 어린이들의 동경의 대상이자 짝사랑 상대였다.

시간이 흘러 당시 이 작품을 즐겨봤던 이들에게 은하철도 999의 주제가 무엇이었던가를 물어보면 다수가



# 장르 초월 충남 음악계 이끌 차세대 주역 '한 자리'

## 문화인-양상블 '소리이슈'

충남문화재단 신진예술가들  
친근한 클래식으로 문턱 낮춰  
소리로 이슈 만들겠다는 포부  
오는 7월 30일 천안서 공연



양상블 소리이슈 단원들이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상블 '소리이슈' (단장 김보연)는 충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8명의 연주자들이 모인 음악단체다. 피아노,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바리톤, 북미원주민피리, 대금 등 국적과 장르를 초월하는 다채로운 편성이 돋보이는 그룹이다. 지난해에는 충남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신진예술단체로 선정되며 자타공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보연 단장을 만나 양상블 소리이슈의 거침없는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양상블 구성 계기는?

="저를 비롯해 8명의 아티스트 모두, 충남문화재단이 선정한 2015-2018년 신진예술가들이다. 나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실력을 인정받

은 지역 예술가로서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 2016년에 있었던 충남 신진예술가 페스티벌에서 합주를 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양상블 구성 계기였다. 평소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개인적인 연주활동을 이어가다가 공연이 있으면 함께 모여 연주를 하고 있다."

### 어떤 음악을 연주하나?

="악기편성이 클래식 위주다 보니 아무래도 클래식 음악을 주로 연주

하고 있다. 다만 정통클래식 보다는 많은 분들의 귀에 익숙한 영화, 뮤지컬, 오페라 음악 등을 들려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막연히 클래식을 어렵고 지루하다 생각하는 편견을 깨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악기 편성에 북미원주민 피리와 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뉴에이지 음악과 퓨전국악도 종종 연주한다. 다른 양상블에 비해 음악 편성이 다채로운 편이다."

### '소리이슈'는 무슨 말인가?

="소리로 이슈(Issue)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는 이름이다. 우리의 음악을 하면서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존재가 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충청도 사투리 '이슈'에서 착안한 것인데 '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의적 표현인데 관객들에게 충청도 사투리로 소개할 때면 재미있어 하고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다."

### 어떤 활동을 해왔나?

="2017년에는 충남문화재단의 '그랫슈콘서트'와 신진예술가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벽산문화재단과 충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넥스트클래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 인문학과 함께 하는 클래식 공연을 천안과 홍성 등지에서 하며 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작년 10월에는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음악이 아름다워'라는 주제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오페라, 탱고, 동요, 재즈 곡 등 귀에 익숙한 명곡들과 함께 단원 개개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는 정통 클래식 곡들을 중간 중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올해 연주활동 계획은?

="가장 가깝게 7월 30일에는 천안 시청 봉서홀에서 '오싹유쾌한 클래식'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월광소나타, 호두까기 인형 중 사랑요정의 춤,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죽음의 무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한 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오싹(?)한 곡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이니 만큼 1000여석의 공연장을 가득 메워주시면 좋겠다. 이어 8월 17일에도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일곱개의 소리 그리고 춤'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인다. 국적과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춤곡을 들려드릴 예정이다."

### 도민들에게 한마디

="더 많은 공연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고자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공연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충남 대표 신진예술가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도록 음악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오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김혜동 kh1226@korea.kr

## 문화행사



### 해설이 있는 콘서트 '고래야'

■일시 : 5월 29일  
■고래야는 '옛고(古) 올래(來) 끌어당길야(惹)'를 써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는 그룹이다. 전통악기 연주자 3명, 퍼커션 1명, 보컬 1명으로 구성된 5인조로 구성된 그룹으로 퓨전국악 스타일의 민요와 창작곡을 연주한다.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문의 : 1566-0155

### 마당극 '동백꽃'

■일시 : 5월 29일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를 진하게 느



낄 수 있는 한국형 음악극이 탄생했다. 마당극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 주민들의 명랑로맨스 스토리다. 아기자기한 드림, 북, 팽과리 등 여러 가지 악기 장단에 맞춰 '아리랑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보자.

■장소 : 당진문의예전당  
■문의 : 041-350-2911

### 소리꾼 황세희 판소리 발표회

■일시 : 6월 1일 오후 7시  
충남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된 사계고택에서 열리는 한옥음악회로, 관객들은 추임새로 참여하고 소리꾼과 호흡하고 공감하며 함께 공연을 만든다. 소리꾼 황세희는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와 이화여대에서 판소리를 전공했

고, 현재 '국악양상블 예소울'의 대표와 한국국악협회 계룡시지부 판소리본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소 : 계룡 사계고택 은농재  
■문의 : 041-630-2942



### 싸가지 놀부전

■일시 : 6월 8일  
■배우 윤문식이 출연하는 흥부와 놀부의 유쾌상쾌통쾌한 이야기. 흔히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전을 시종일관 신나고 유쾌하게 재해석했다.

■장소 : 예산군문예회관  
■문의 : 041-339-821

### 장항항 수산물 낚잡축제

■일시 : 6월 1일~9일  
■축제장에서는 각종 신선한 회뿐 아니라, 서천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시식행사도 진행한다. 우리 수협에서 위판된 수산물, 건어물 등 판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항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즐길만한 회를 맛볼 수 있는 수변 회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장소 : 서천군 장항항 물양장 일원  
■문의 : 041-950-6307

### 함신익, 심포니송

■일시 : 6월 10일, 26일  
■지휘자 함신익과 오케스트라 심포니송의 클래식 공연이다. J.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G.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이흥렬의 '꽃구름 속' 등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곡들로 구성된 클래식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지휘자 함신익을 필두로, 심포니송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바이올리니스트 흥예린, 소프라노 장유리, 첼리스트

이수정 등의 협연이 함께 진행된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041-630-2913

### 논산시민공원 버스킹

■일시 : ~9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주말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논산 시민공원으로 한번 떠나보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마술쇼, 밴드공연,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선보인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끝을 논산에서 장식해보는 것은 어떨까.  
■장소 : 논산 시민공원

### 이미자 음악회

■일시 : 6월 8일  
■가수 이미자가 노래 인생 60년을 기념해 천안에서 콘서트를 연다. 삼마을 선생님, 동백아가씨, 엘리지의 여왕, 지평선은 말이 없다, 황혼의 블루스, 기러기야빠, 아씨 등 이미자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만나보자.  
■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  
■문의 : 1644-2543



작품명 : 몽돌 해변

##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여행스케치

## 안개 가득한 외연도 몽돌해변

외연도! 서해의 보령에 속한 90개의 섬 중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중국에서 닭우는 소리가 바람이 고요한 새벽이면 들린다고 할 정도로 중국과 인접한 조그만 섬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안개에 가린 듯 까마득하게 보여 섬이름이 외연도란다. 보령 대천항에서 에버그린호를 타고 가며 서해의 파도가 이리 잔잔한 날은 일년에 몇 번 안된다는 친절한 선장님의 설명을 들었다. 잔잔한 바다와 해면에 부서지는 햇빛, 배를 따라오는 기러기떼, 멀리 보이는 낮은 섬들, 간간히 밀려오는 해무...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2시간 만에 외연도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로 선정된 상록수림과 수백년간 자연 그대로 유지된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아름답고 다양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조그마한 섬이지만 숲으로 들어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다. 봉화산을 넘어 섬 주변 산책로길로 들어서니 이름모를 노랑, 보라, 주황 등등의 야생화들이 멀리보이는 쪽빛 바다와 어울려 해방계 우리를 반긴다. 몽돌해변에 도착해 멀리 고래급, 명금, 매바위등을 바라보며 스케치를 해본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욱





# 현장 친화적 대안 내놓은 충남도 출산정책

## 내포칼럼



**최 선 경**  
충남감등관리심의  
위원회 부위원장

### 경제난·경력단절·교육 등

### 아이 낳지 않는 이유 많아

### 저출산 원인 여성에게 돌리는

### 사회 풍토·인식 개선해야

### 충남도, 삶의 질 제고 인구정책

### 교육·주거·보육환경 등 개선

### 24시간어린이집·행복주택 대표적

### 보육문제 사회가 함께 풀어야

워킹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고충과 비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차마 셋째는 낳을 엄두도 못 냈었다. 왜 여성들은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할까? 이유는 명백하다. 경제난, 경력단절문제, 자녀교육, 양육비 등 출산 뒤에 가려진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와 고스펙 여성들의 하향 결혼 유도, 이것은 몇 년 전 행정자치부와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개 후 많은 사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저출산 원인을 여성이라는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과 실질적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초점이 한참 빗나간 정책이라는 이유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고질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정부의 이런 어이한 인식으로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고 갖가지 출산 장려책을 펼쳤다. 그동안 들어간 돈도 약 153조원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이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실업에서부터 고용불안, 저임금, 주거난, 빈부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까지 출산과 육아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잔뜩 안고 있는데 모두 부분적, 일시적 대책에 그칠 뿐 생존 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여성과 청년, 아동 등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단순 지원정책만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근래 들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한 것은 뒤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최근 충남도는 더이상 출산을 제고에 정책 방향을 두지 않고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교육·주거·보육환경 및 가족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개선한다는 것이 주된 방침이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충남도의 발표가 참으로 반갑다.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 두 가지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충남형 행복주택’을 꼽을 수 있겠다. 지난달 23일 내포신도시 내에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충남아이키움뜰’이 문을 열었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내포신도시 전체 인구의 83.2%가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맞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형 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반으로 줄고 두 명을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이키우기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중심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현장 친화적인 여러 좋은 정책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와주길 바란다.

# 아산의 산, 트레킹으로 제격

## 생생현장리포트



**임재룡**  
온양신문사  
편집국 실장

아산(牙山)엔 지명에 ‘산(山)’이 들어 있어선지 서해안 지역치고는 산이 많은 편이다.

가장 높은 광덕산(700m)를 비롯해 망경산(600m), 봉수산(535.3m), 도고산(482m), 태화산(461m), 설화산(448m), 배방산(361m), 영인산(364m) 등 무수히 많다.

이들 산들을 지맥(地脈)이나 기맥(氣脈)으로 묶어 연계한 것이 아산기맥, 영인지맥, 황산소지맥 등인데 지역 내·외 등산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아산기맥은 총연장 45km에 달하는 능선으로 배방산에서부터 도고산까지 아산지역 상위 5개의 산이 동-남-서로 산성처럼 아산을 둘러싸고 있다.

주산은 단연 광덕산이고, 망경산(태화산)과 봉수산(도고산)이 마치 좌우 날개처럼 기맥을 받치고 있다.

특히 서귀봉(593m)과 각흘고개 사이로 금북정맥이 들어와 아산기맥을 따라 달리다가 봉수산에서 공주 천방산 방향으로 빠져 나가기도 한다.

영인지맥은 입암산에서부터 연암산까지 아산의 북부지역 좌우를 잇는 총연장 27km 정도의 지맥인데 주봉이 영인산일 정도로 낮으막 하나 윤보선 전 대통령, 총무공 이순신 장군, 과학선현 장영실 등 위인의 묘소가 지맥상에 분포해 영험한 기를 자랑한다.

황산소지맥은 아산기맥 안에서 나란히 달리는 15km 정도의 소지맥인데 학성산에서부터 덕암산-황산-월라산까지 200~300m 중반의 낮으막한

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자락에 순천향대학교, 경천대학교, 경찰교육원 등 쟁쟁한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중 단연 등산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산기맥인데 전 구간을 한 번에 종주하기는 어렵다. 편의상 배방산-각흘고개(금계령)까지 제1구간, 각흘고개-도고산까지 2구간으로 나눠서 주파한다. 이마저도 각각 20km가 넘는 장거리인지라 보통은 제1, 제2 구간을 다시 반씩 나눠서 전체를 4구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종주한다.

아산기맥의 주봉(광덕산) 능선은 아산과 천안의 경계인 남티고개에서부터 공주와의 경계인 각흘고개(금계령)까지 13.6km 구간인데 능선에 올라서면 말 그대로 천연의 산성처럼 좌우로 아산과 천안, 공주가 조망된다. 산행을 위한 접근은 남티고개-망경산이나, 강당골-광덕산, 각흘고개-서귀봉 등 다양하다.

천안 쪽에서는 광덕사 주차장에서, 공주쪽에서는 갈재고개를 통해 정상 능선에 올라설 수 있다. 자세한 산행 요령은 현지인으로부터 안내를 받거나 산행 안내 사이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아산지역 산행의 묘미는 산행 후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 등을 탐방하는 것이다. 이후 온양·도고·아산 등 3대 온천에서 피로를 풀 후 다양한 먹거리로 입맛을 돋운 후 인력한 숙박업소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이튿날은 봉수산 천년의 숲이나 현충사 앞 은행나무 거리, 신성호 호반산책로를 걸으며 뭉친 근육을 풀어 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산행은 평소 쓰지 않던 몸의 근육을 모두 쓰는 전신운동이다. 싱그러운 초목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르는 이 5월, 운동도 하고 산천경계를 보며 마음도 정화시키는 아산의 산에서 힐링하시기를 바란다.

# 간월도에 정착한 송(宋) 최고 명문가의 후손

## 충남유교이야기⑦

### 충청유교의 선구자, 정신보



중국 저장성 정씨 일가의 거주지인 '강남제일가' 유적

한국에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고려 말의 유학자 안향(1243~1306)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89년(충렬왕 15년) 11월 세자 시절의 충숙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간 안향은 주자의 저서를 필사하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을 그려 이듬해 고려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이 주자 성리학이 조선에 도입된 시점으로 공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 고려 중기부터 이미 주자의 선구자인 이정(二程: 정호·정이) 형제와 그 제자들의 명성이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안향에 의한 주자학 도입에 앞서, 충청지역에 이정의 성리학이 먼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바로 고려 말 정신보(鄭臣保, ?~1261)라는 인물에 의해서이다.

정신보는 중국 절강(浙江)의 강남제일가 의문(義門) 정씨 집안의 인물로서, 송나라에서 상서형부원외랑이

라는 벼슬을 지낸 관료이자 학자이다. 그는 몽골의 침략으로 송나라가 멸망할 무렵인 1237년 고려로 망명하여 충남 서산의 간월도에 정착했다. 망명 후 고창군부인 오씨와 혼인하여 인경·준경 두 아들을 두었고, 인주(麟州: 현재의 의주)태수를 지냈다. 송나라의 문물을 전수한 공으로 사후 문하시랑평장사에 추증되었고, 송곡서원에 배향되었다. 큰아들 인경은 크게 현달하여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우고 서산 정씨의 시조가 되었다.

정신보가 당대 중국의 최고 명문가에 해당하는 강남제일가 출신으로서 중앙관직에 있었다는 점, 그리

고 당시 중국의 남방에 이정의 학문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신보는 상당한 수준의 성리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들 인경이 정신보의 지도로 학문에 통달하고 과거에 합격했었다는 점으로 추측해 보아, 적어도 이정의 성리학은 정신보를 통해 고려에 전파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충청은 기호유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리학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발전한 곳이기도 하다.

/이치영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왜 내포 보부상이 유명했나?

## 변평섭의 사랑방 이야기



전 충남역사문화  
연구원장

-시장에서 억지로 물건을 강매하는 자는 볼기 40대에 처한다.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으면 볼기 25대에 벌금 3전을 내야 한다.

-술주정을 하면서 나동을 부리는 자는 볼기 20대에 처한다.

이것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예덕상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부상의 지침을 요약한 ‘예산임방절목’의 내용이다. 이밖에도 보부상들이 머리에 쓰던 패랭이 등, 예산·덕산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보부상들의 유품들이 ‘예덕상무사’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보부상이란 이름 그대로 상품을 등

에 짊어 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보부상 조직이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활동도 왕성했다.

규율도 엄격하여 내포지방 보부상들의 신용도가 전국적으로 높았으며 이들이 파는 물건을 그 만큼 인정을 받았다.

특히 내포지방 보부상들의 경제활동이 왕성했던 것은 서해안의 풍족한 수산물과 삼고, 당진 평야지의 곡물, 그리고 인전 등 수도권과의 물물유통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쓰던 패랭이에 솜뭉치가 달려 있는 것이 이채롭다.

동료나 자기가 다쳤을 때 지금의 붕대처럼 쓰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조총 총구의 화약을 담는 용도였다는 설, 그리고 보부상의 직급을 표시한 것 이라는 이야기 등등.

아찔든 중요민속자료 30호로 지정될 만큼 귀중한 문화재라는 점에서 예덕상무사가 보관, 전시하고 있는 보부상 유품들이 과거 유품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한다.





# “청년 살기 좋은 홍성으로 오세요~!”

전국 최초 ‘청년 이슈 마을’  
주거비·문화네트워크 지원  
지역청년 안정적 정착 도와



청년 이슈 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홍성군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들의 홍성 정착을 돕고 문화부족 현상을 해소하며,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 이슈(ISSUE) 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년 이슈(ISSUE) 마을은 홍성군 내 읍·면 단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문화부족 및 네트워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지역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암행어사 게스트하우스’와 ‘커피오감’을 청년 네트워크 사랑방 운영 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행사와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을 연결해주고 정착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4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 ‘심야학당’은 퇴근 후 청년들이 모여 지역 청년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와

참여자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에는 카드지갑, 케이스, 클러치 만들기 등의 가죽공예를 진행했고 5월 자수공예, 6월 악세사리 만들기, 7월~8월 중국어 교육, 9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10월 향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심야학당 참가자들은 “처음 해보는 가죽공예를 또래 청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퇴근 후나 주말에 연락할만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등의 소감을 남겼다.

이 밖에도 홍성에서 진행하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의 문화를 체험하는 ‘Moon\_화요일(문화가 있는 화요일)’, 취미활동을 찾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취미활동 경험의 기회를 주는 ‘취미를 찾아라’, 홍성으로 지인을 초대해 홍성을 소개하는 체류형 프로그램 ‘어서와 홍성은 처음이지?’, 청년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이슈 마을 입주자가 함께 어우러져 명랑운동회를 비롯한 ‘네트워크 파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홍성군 제공



## ‘백제 미마지탈’ 공연 개막

10월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  
공산성 고평 야외무대에서 열려

공주시가 지난 25일부터 매월 격주 토요일 공산성 고평 야외무대에서 ‘백제 미마지 탈이 온다’ 야간 상설 공연을 운영한다.

시는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마곡사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증가한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야간 상설공연을 펼치기로 하고 관광객 눈높이에 맞게 연출과 안무 등을 보완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백제 미마지 탈이 온다’ 공연은

옛 선인들의 예술혼을 담아 백제기악의 인물인 오공과 오녀, 가루라, 곤륜, 취호종 등을 등장시켜 난버벌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한 무용창작극이다. 이번 공연은 오는 10월 12일까지 매월 격주 토요일마다 공산성 고평 야외무대에서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무료로 진행된다.

백제 미마지 기악은 백제 예술인들이 궁중에서 펼쳤던 화려한 연희로 악, 가, 무가 합쳐진 종합예술이며, 백제인 미마지는 서기 612년 백제기악을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기가쿠’라는 장르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줬다.

/공주시 제공

## 체전 성공기원 ‘오색팔찌’ 전달 최설희 국내 작두명인 1호



대한민국 무속부문 작두명인 1호로 지정된 서천군 최설희 명인이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14일 오색팔찌 3000개를 서천군체육회에 전달했다.

최설희 명인은 논산시자원봉사센터 SNS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 명인은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색’이라며, “5개의 색이 서로 어우러진 오색팔찌처럼 각 시군의 참가자와 도민들이 결속을 다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재능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천군체육회는 참가 선수단의 부상 없는 경기 및 선전을 기원하는 오색팔찌를 제71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식장에서 시군 선수단에 전달했다.

/서천군 제공

## 양궁 메카 홍성 “살아 있네~”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준우승  
홍성 김세연·공주 박규석 선수

홍성군청 양궁팀이 지난 최근 전라북도 임실군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36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홍성군청 김세연 선수와 공주시청 박규석 선수가 함께 팀을 이뤄 혼성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경호 감독과 이성진 코치, 심민주, 김세연, 박재희, 이소담 선수가 참가했다.

경기종목은 리커브 개인전, 단체전, 혼성단체전으로 전국에서 총 34개 팀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뤘다.

홍성군청 양궁팀은 지난 1990년 2월 창단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조순 선수를 배출했다. 2004년 아테네와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진 선수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수 유망선수인 광주여자대학교 출신의 이소담 선수를 영입, 전력을 강화하고 팀을 재정비했다.

김경호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열심히 따라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해 홍성 양궁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성군 제공

## 기독교 신앙 바탕 투사의 삶을 살다

### 충남의 여성독립운동가

⑥ 조화벽

영명학교 때 유관순 동생과 결혼  
개성으로 이주해 3·1운동 계획

유관순 가계에서 기억해야 또 한 사람의 여성은 조화벽(1895~1975·사진)이다.

조화벽은 공주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유관순의 동생인 유우석과 결혼한 인물이다. 당시 유우석은 3·1만세 운동 주도 혐의로 공주법원에서 7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서울복심법원에 항소하여 3년형을 언도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화벽과 유우석은 1923년경에 혼인한 후에 개성으로 이주했다.

이 당시 조화벽은 원산의 진성여자학교 교사로 전근했다. 특히 1929년의 원산노동자파업으로 상징되는 이 지역은 사회주의 계열 청년들의 반제투쟁의 중심지역이기도 했다. 남편과는 달리 조화벽은 굳건한 신앙심으로 기독교 사회활동을 멈추지 않고 원산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원산 상동회관)에 부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시누이 유관순과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녀를 앞에 펼쳐진



안팎의 환경은 유사했다. 유관순이 태어난 지령리는 유인석 의병장 등 호서지역의 의병부대의 활동 지역이며 동학이래 항일투쟁이 크게 일어난 곳이다. 조화벽이 태어나고 자란 양양 역시 한말 강원지방의 저항이 치열했던 곳이다.

두 여성의 집안 모두는 남강리교 기독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과 기독교의 전래를 받아들였으며, 기독교에 입교한 후에는 신앙과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점도 공통된 부분이다.

두 집안 모두 향리에 교회를 설립해 신앙운동을 펼쳤고 학교를 운영한 점으로 보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독교와 신문을 수용하고 사회 개혁에 열정적으로 뛰어 들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남강리교

미션스쿨에 보내 새로운 시대의 일꾼으로 성장시켰다.

그 당시 애국계몽운동의 전개는 지역적으로 다르다 해도 그들을 자극했던 동기와 운동의 배경이 동일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기독교를 민족구원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점과 당대 발간되었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에 실린 논설에 공감하고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에도 기인한다.

이렇게 두 여성은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교육열이 높았던 부모 덕분에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남강리교 여성교육의 명문 학교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조화벽은 호수돈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개성 북부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심과 함께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유관순은 북강리교 미션스쿨인 이화학당으로 편입하여 공부하면서 인근 정동교회를 다니며 손정도목사의 목회를 듣고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 이처럼 두 여성은 감리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독실한 신앙과 민족의식을 키워가며 흔들림없이 구국의 의지를 불태우며 3.1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품고 있었기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고장의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이다.

/충남 여성문화사 총서II /김혜동 khdf1226@korea.kr

## 미혼모 아닌 비혼, 한부모가 옳아

### 기고

5월 10일은 한부모의 날로 작년에 처음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부모의 은혜와 노고를 감사하는 날이지만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아닌 한부모만 있게 된다. 따라서 5월 8일은 한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어 5월 8일 어버이날과 같은 5월 10일 한부모의 날을 제정된 것이다.

초등학교 한 반에서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별 등으로 한부모만 있는 경우가 30%가 넘는다. 그 만큼 한부모 자녀가 많다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부모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족관계를 조사할 때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모두 적어내게 한다든지, 군대에서 한부모 자녀를 ‘관심사별’으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든지 하는 경우 한부모 자녀들은 마음

의 상처를 입게 된다.

한부모 자녀들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파 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 결혼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무시하는 풍조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편견들은 미혼모라는 호칭에서도 볼 수 있다. 미혼모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가졌다는 것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이 여성들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1인가구가 인구의 30%가 넘는 때에 젊은이들에게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나?”라고 묻는 것은 차별을 자극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미혼(未婚)이라는 용어보다는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를 일컫는 용어인 비혼(非婚)이라는 용어가 차별적이지 않게 된다.

/김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



# “갯벌썰매 타봤슈?”...농산어촌 매력을 한곳에

## 더 행복한 마을

⑬서천 동백꽃마을

4월엔 동백·수선화축제

여름엔 갯벌썰매 체험

아리랜드-해가마을 손잡고

군내 관광지 연계하며 상생

주변 자원 적극 활용하며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곳’



이양기가 끄는 갯벌 썰매를 타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봄이면 동백과 수선화 향기가 마을을 감돌고, 여름엔 마을 앞에 펼쳐진 갯벌을 즐기는 체험객이 가득한 곳. 마을의 모양이 조개를 닮았다 하여 합전(蛤田)이라 불리다. 이제는 마을의 대표 콘텐츠인 동백으로 더 널리 알려진 마서면 동백꽃마을을 찾았다. 4월까지 만발한 춘백(春柏)도 다 졌을 시기라 동백에 대한 기대는 접고 갔지만, 마을 정보화센터 건물 벽면과 앞마당의 동백 그림과 조형물이 방문객을 반겼다.

마을위원장과 이장을 겸하고 있는 나상범 씨는 지난 2001년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인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이 함께 잘사는 마을을 꿈꾸며 이

장을 맡았다고 한다. 마을은 2009년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된 이래, 2001년 아름마을·2003년 정보화시범마을 등으로 선정되며 경관 정비와 환경 개선 등 외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착착 갖춰왔다. 특히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마을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자 멀리서도 홈페이지만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고, 덩달아 온·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과 건어물 판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당시 마을주민 20여 가구가 민박 운영을 겸하며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고, 이런 경험은 후에 정보화센터 건립 후 센터에서 숙박과 식당 운영을 겸하게 될 때 유용하게 활용됐다. 얼마

전 서천에서 도민체전이 열릴 때도 종합운동장과 가깝다 보니 여러 시·군의 선수단이 마을에 와 머물렀다.

나 위원장이 꼽는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은 연중 지루할 새 없는 다양한 체험거리다. 계절과 관계없이 바다향연 연염색 등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부와 송편, 청국장 등 다양한 먹거리도 직접 만들어 맛볼 수 있다. 마을 내에서 이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체험이 가능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체험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 안에 아리랜드와 해가마을이란 두 곳의 체험학습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



나상범 위원장

도 하다.

아리랜드는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동백숲을 처음으로 가꾸게 된 곳이고, 해가마을은 유기농 먹거리로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다. 두 곳 모두 주민들이 운영하는 만큼 합심하여 서로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여러 체험거리 중에서도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갯벌썰매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체험카로 갯벌로 나가 바지락이며 백합을 캐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장 인기 있는 건 갯벌썰매다. 눈썰매를 구입해 이를 이양기에 연결해 매달고 달리는 갯벌썰는 이

곳에서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백꽃마을은 마을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서천군의 관광자원 및 다른 체험마을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작년엔 수도권 방문객들이 국립생태원을 구경한 후 마을에 와 체험과 식사를 즐기고 장항 스카이워크를 찾아 일몰을 감상하며 하루 여행을 마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서천군의 성경 전래지를 코스에 포함시키는 맞춤형 여행도 구상 중이다.

“항상 똑같은 길로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관광지나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건 그쪽으로 넘겨주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마을 안에서든 마천까지, 주민들끼리 서로 체험 아이템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고 새로운 걸 제안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이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경쟁보다는 상생, 우리끼리보다는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꿈꾼다는 나 위원장과 주민들이, 올 여름은 어떤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 도민체전 천안시 종합우승

아산 2위·서산 3위 차지

내년 당진군·2021년 보령 개최

**[서천]**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가 도내 15개 시·군 7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등 5만여 명의 도민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나흘간 19개 종목의 뜨거운 열전이 연일 이어지며 220만 충남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과 열정의 장으로 펼쳐진 도

민체전은 천안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 아산시가 2위, 서산시가 3위의 성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체전 개막식은 이채로웠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방언옥 선생이 서천군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한산 모시풀의 불씨로 채화한 성화를 220만 도민의 희망을 담아 13개 읍면 주민 등 총 126명의 손을 거쳐 109.3km를 함께 달려 점화하는 이색 이벤트를 선보였다.

서천군은 내실 있는 대회 운영으로

### 제71회 도민체전 종합 성적

순위	시군	총점	8	태안	1만5800
1	천안	2만6000	9	홍성	1만5800
2	아산	2만3500	10	계룡	1만4750
3	서산	2만2600	11	공주	1만3100
4	당진	2만1700	12	금산	1만2350
5	서천	2만1700	13	창양	1만2250
6	논산	1만8750	14	예산	1만1700
7	보령	1만6250	15	부여	9450

호평을 받으면서 성취상 1위와 모범상 등 2관왕을 받았다. 내년에는 당진시에서, 2021년에는 보령에서 개최된다.

이현자/천안신문  
icjn@hanmail.net



## 고마나루 솔밭의 곰 울음

### 충남의 명소

#### 공주의 시원 고마나루

고마나루는 공주의 시원(始原)이자 상징이다. 무령왕릉에서 1km 떨어진 금강변의 나루로 역사성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인정받은 명승 제21호다.

공주를 휘감는 고마나루 솔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곰을 숭배하는 곰 사당이 복원돼 있다. 건너편의 연미산(燕尾山) 곰 굴은 곰과 나뭇꾼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공주사람들은 고마나루와 솔밭을 신성시했다. 해마다 음력 3월 16일에는 계룡산산신제와 함께 고마나루 웅진단터에서 수신제를 지내고 있다. 고마나루, 웅진(熊津)은 백제시대

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1972년 고마나루 부근에서는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곰 상이 발굴돼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공주의 관문인 고마나루는 1010년 고려 현종이, 1624년에는 조선 인조 임금이 고마나루를 건너 공주를 방문하였던 곳으로 인근 한옥마을에는 ‘고려 현종비와 조선 인조비’가 건립되었다. 또 2006년부터 자연미술공원으로 조성된 연미산에는 한국자연미술가협회가 추진하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의 국내외 작가의 곰을 형상화한 작품을 비롯한 수 십점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신용희(공주시)

## 김정희 친필 금석문 발견

### “추사 말년 금석문 대표작”

**[예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금석문이 발견돼 주목된다.

전북 임실문화원(최성미 원장)과 전라금석문연구회(김진돈 회장)는 전주 최씨 만옥과 후손 최성간(1777~1850) 묘비 글씨가 추사 작품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묘비는 14일 임실군 청 김철배 학에서 제보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산192번지에서 찾았다. 앞쪽은 추사가, 뒷면은 추사의 외6촌인 유

한지(1760~1834) 아들 유화주(1797~1860)가 예서체로 썼다는 설명이다.

또 “글씨체를 보면 좌우대칭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추사만의 독특한 필획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中)자와 사(事)자 등은 해서의 필획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은 1851년 10월 최성간 조카 최한중이 지었고, 글씨는 같은 해 7월 북청으로 유배된 추사가 이듬해 해배된 이후에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선 추사-초의 선사-김기중-최한중으로 이어지는 친



교를 바탕으로, 추사와 최한중도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근/무한정보신문  
dk1hero@yesm.kr

## 당진문학, 충남 제1호 문학관 지정

**[당진]** 당진문학관이 충남도 제1호 문학관으로 등록·지정(제2019-001호) 됐다. 2015년 개관한 당진문학관은 당진에서

출생했거나 당진에 적을 두었던 시인과 소설, 수필가 등의 생애와 업적, 작품과 유품을 수집·발굴해 연구하고 그

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설립됐다.

심훈 선생의 시집과 소설 상록수를 비롯해 1989년부터 틈틈이 모아온 당진에서 발간된 문학작품 등 당진과 관련된 서적 수 천 권이 정리돼 있다.

/당진시 제공

### 50년 전 인삼 시세 한눈에

#### 강재하씨, 인삼 시세일기 기증

**[금산]** 금산읍에서 인삼업에 종사하는 금중인삼사 강재하 대표가 196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작성해 간직하고 있던 인삼시세일기 기록물 총 62점을

금산군에 기증했다.

기증한 인삼시세 기록물은 총 62점 중 59점은 매일 5일장 기준으로 인삼시세를 곡삼, 직삼, 잡삼으로 구분해서 가격을 기록했고, 이중 3점은 인삼시세일기에 있는 가격을 그래프로 그려서 인삼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금산군 제공





# 달달한 메론 과즙의 유혹, 여름사냥

부여 굿뜨래 '애플수박' 본격 출하  
예산도 애플수박 대형매장 출시  
천안 당도 높은 수신크론 한창



천안 수신크론의 한 농민이 수확을 앞둔 멜론을 살펴보고 있다.

여름철 시원하고 과즙이 풍부한 수박, 멜론이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며 충남 농업의 새로운 판로를 구축하고 있다.

부여 '애플수박'은 부담 없는 크기로 먹을 수 있는 수박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했다.

애플수박은 일반수박의 4분의 1정도 크기로 무게는 900g~1.5kg이며 운반이 편리하다.

또한 11브릭스로 당도가 높고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며 껍질이 얇아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과일이다.

비닐하우스 1동당 600만원의 소득창출로 일반수박 대비 160% 이상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대형 유통업체 납품 외에 800g 이하의 상품은 과일 주스용으로 판매를 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부여 애플수박은 1차 수확은 약 8000톤으로 전량 이랜드에 납품해 안

정적인 판로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3만 통의 수박을 출하할 계획이다.

예산군도 지난 21일 애플수박 재배 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양면 서계양두련길 정송희 씨(72) 농가를 방문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

예산 애플수박은 신양애플수박공선회 계약재배를 통해 롯데마트, 이마트 등 애플수박 전문매장으로 납품된다.

당도 면에서 수박보다 한수 위인 천안 수신크론도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하늘그린 천안멜론' 상표로 유통되는 수신크론은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멜론은 저장 가능한 과일이 아니라 5~6월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다.

수신크론은 당도가 16브릭스 이상의 과육이 부드러운 무늬가 없는(무네트) 홈런스타 품종이다. 천안 멜론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수신크론에서 33년간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로, 올해는 65ha 면적에서 105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천안시는 가을에도 멜론을 수확할 수 있도록 멜론 2기작 안정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가을에도 멜론을 수확할 수 있도록 멜론 2기작 안정 재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도정신문팀

# 꿈을 현실로... 할머니모델

현숙씨, 글로벌 모델대회 우승  
'손주들에게 사랑스런 할머니'



[당진] "1등 발표를 듣고 얼떨떨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소감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전달해 했던 거 같아요"

당진으로 터전을 잡은 지 6년 정도 되었다는 정현숙(61)씨는 올해 회갑을 맞아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현숙 씨는 지난 달 12일 열렸던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럭셔리 브랜드모델 어워즈 글로벌 패션위크'에서 LBMA STAR 월드파이널 시니어 모델부문 1등을 차지했다. 현숙 씨는 스스로에게 회갑 기념으로 지원만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 도전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여동생의 미스코리아 출전을 보면서 무대를 꿈꾸다가도 이내 엄마의 자리로 돌아와야

만 했다. 하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모델학원을 1년간 다닌 끝에 도전에 성공한 것.

제 자신에게 고마웠다는 그녀는 "손주들이 더 크면 할머니가 이런 꿈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성/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 서천 장항읍 만깍축제

5월 31일부터 사흘간 추억 물씬

[서천]서천군 장항읍의 6080맛나로 거리에서 '2019 장항 6080 뉴트로 여행 만깍 축제'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다.

만깍 축제는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감성을 전하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뉴트로 콘셉트로 꾸며진다.

장항읍 6080 맛나로 음식 골목이 간직하고 있는 근대화 역사자원과 음식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색을 가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레트로 콘셉트

/서천군 제공



를 살린 맛나로 가요제, 추억사진관을 비롯해 참여 가능한 만깍 문방구, 골목놀이터가 열려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며 별밤콘서트와 만깍 쇼타임 공연으로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 청양 칠갑산 산양 치유체험

칠갑산 자락의 알프스산양목장. 이곳에서는 산양과 교감하며 심신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가족단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기 양과 포옹하기, 산양 먹이 주기, 산양유 짜기, 산양유 빵과 치즈만들기 등이다.

/청양군 제공

# 고려 청동순가락 원료 산지는 충청도

태안 마도 출수 구리 산지 규명

[태안]수증문화재의 보고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출수된 청동유물 중 청동순가락 8점의 원료 산지가 충청도 지역의 구리광석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소진 학예연구사는 최근 목포 상그리아호텔 대회의장에서 열린 '과학으로 되살린 해양실�크로드 유물과 신안산'이란 주제의 학

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태안 마도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청동순가락의 미세조직 관찰한 결과 구리 산지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광산으로 추정된다"며 납동위원소비 통해 납, 구리 산지를 밝혀낸 것.

김 연구사는 "마도 출수 청동순가락은 합금 단계에서 주석의 함량을 높여 제작되었고, 주석의 함량이 높아지면 경도는 높아지지만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586~600°C 정도의 고온 열처리를 해서 재결정을 발생시킨 뒤 담금질에 의한 급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사는 "이를 통해 고려시대 장인들은 단조와 급랭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고주석 청동의 우수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제로 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했다.

김동이/주간태안신문  
east334@hanmail.net



# 갯벌 체험 전국 몽산포 해변

이 물리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갯벌 체험을 즐기기 위해 몽산포 해변 갯벌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몰리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신문용/주간태안신문 shin0635@hanmail.net



# 부여군 벼 소식재배 시연

부여군이 실시한 벼 소식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시연회가 높은 관심을 모았다. 벼 소식재배는 10a당 모판수를 기존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여 생력화 하는 모내기 방법으로 재식거리가 넓어 도열병, 잎질무늬마름병 발생이 적고 도복에도 강한 특성을 지닌다. 또 소식재배로 노동력을 줄여 10a당 6만35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여군 제공

# 아산 관아유적 체험프로그램

[아산]아산시가 온주아문에서 오는 11월까지 온양의 관아유적인 온주아문에서 '온주아문, 다시 수락하다' 문화재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생문화재 '온주아문 다시 수락하다'는 옛 온양온천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구도심이 된 상태다.

세부 프로그램은 '사포 양로연이 뭐예요'를 비롯, 온주아문 가족에 통통캠프, 온주아문 육방학교 속수레(조선시대 입학식) 등이 있다.

조선복장체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아산시 제공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 통과...제311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35건 등 49개 안건 심의 5분 발언으로 대응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49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1건, 조례안 35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의 건 1건, 건의안 6건 등 총 4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나열, 대응책을 촉구했다.

8명의 의원들은 '학교밖 청소년 현황과 대책 방안',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등 도민과 밀접한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여운영 의원은 도지사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학교 청소년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과 제도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의원은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정책개념은 선별적 차원을 넘어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할 보편적 정책방향으로 전환된 만큼 충남도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한 공기정정기 지원 사업이 일회성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은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TF팀을 신설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포혁신도시 지정 논리를 개발해 불합리한 정부 계획에 대한 대대방안을 마련하여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심 증가, 친구들 및 지도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

회성을 배운다"며 "방과 후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문화의 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재표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수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고교 설치 확대를 통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전공을 신설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인력 선순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발전, 항공, 해양수산 부문의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은 "오늘 또 다시 '공주보 철거'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310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여건이 변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으며, 현재 공주보 주변 지역주민과 지역여론 동향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정부의 일방 통행식 공주보 철거 정책 결정에 있어 양승조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인철 의원은 "220만 도민이 늘 건 강해야 충남도를 지탱하는 활력도 넘쳐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통해 충남도의 공동주택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이공휘 의원은 "민선7기 도정목표와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비 단독 사업에 대한 시·군 일제 점검을 통해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사업을 제거

하고, 시·군의 경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점검해야 하고, 전액 국비 사업의 경우 행정업무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필요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 등이 임시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리 증진 등 도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는 도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 교육청, 추경 54억 6831만 원 삭감

### 학생 건강·환경 개선 초점

충남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정광섭, 태안2)는 지난 15일 열린 충남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심의 결과 16건 54억 원을 삭감한 4조 771억 원을 의결했다. 당초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7건 54억 원을 증·감하여 예결위에 부의 상정됐다. 증액된 예산 중 설계단계로 이월이 예정되는 시설사업비 54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입했다.

이번 충청남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수학습활동 286억 원, 학교운영비 75

억 원, 학교재정지원 106억 원, 교육시설개선 1983억 원, 지방채상환 3368억 원 등 본예산 보다 625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결위는 노후 교육환경 정비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

또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삭감예산을 결정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체육관환경장치 32억원과 소규모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2억원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추경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배분 타당성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배분 타당성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청 및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 유병국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참석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임시회에서는 협의회 현안사항 등 보고 및 논의를 비롯해 시·도 제출안건 사전 심의가 이뤄졌다. 현안 사항으로는 ▲필리핀 지방의 원협의회 MOU체결 계획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배부 ▲실무위원회 5차 정기회 개최 결과



유병국 의원

보고 ▲지방분권 TF 7차 회의 결과 ▲제7기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결과 등 총 5건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광역시도의회의장 표창의 공적을 위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등 총 11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 현안 정책연구로 입법 전문성 'UP'

### 정책위원회, 연구용역 착수보고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및 정책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인 안장현 의원(아산4) 주재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의원 및 정책 관련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에서는 2019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선정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 분석 재정지표선정 및 활용방안과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를 담당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위원회 제2분과도 지난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충

청남도,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분과 소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인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 연구용역'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인 '전통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 LPG 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 과제들은 충남도의회 당면현안 가운데 정책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과제들로 충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정책위원회 제2분과 의원들이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임금 등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 의원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연 의원은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귀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연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감정기보다 높은 액수로는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며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 하루속히 귀환하길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축구종합센터' 유치 환영 최종 확정 위해 역량 집중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이전후보지 우선협상대상 1순위 자치단체로 천안시가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천안시가 NFC 유치 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것은 220만 도민과 범 충청권이 하나된 목소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축하의 뜻과 함께 "남은 절차를 끝까지 잘 준비해 완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1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 민주시민교육 조례 심사보류

###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의원(아산 4)은 “하나의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며, “조례제정 시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의원(천안 2)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한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공감함을 표시 했으나 “조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의원(보령 2)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조례를 떠나 매우 당연한 것”이며, “별도의 센터 설립 보다는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또는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인환 의원(논산 1)은 “충남도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눔을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과거의 객

관적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판별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재표 의원(태안 1)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관련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에 대해 유감”이라며,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자 충남도의회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은 “우선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해 감사양성



이공휘 위원장



안장현 의원



조길연 의원



홍재표 의원



오인환 의원



이선영 의원



이영우 의원



한영신 의원

및 시·군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센터설립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 및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북도청 신도시를 방문하여 내포신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 정책 필요

###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했다.

전날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의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던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2

차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김연 위원장은 “제11대 의회 구성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 이후 집행부의 적극

적인 행정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관광육성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여운영 의원은 도내 관광객 통계자료 작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은 ‘일본인 위안부 조례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충남도에서도 지자체로서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충남



김연 위원장



김옥수 의원



김기영 의원



김한태 의원



여운영 의원

도의 책임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문복위는 지난 14일 저출산보건의복지실 관계자들과 함께 세종 및 대전 복지재단을 방문해 운영상황 등을 청취했다.



정병기 의원



최훈 의원



황량란 의원

## 대기환경 개선 자문 기능 강화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기환경개선 등의 심의·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차량 운행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원안 심의 후 김명숙 의원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국에 “본 조례안이 향후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

상저감 조치로 운행제한 대상이 될 노후경유차 등의 교체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심의했다.



김명숙 의원



김복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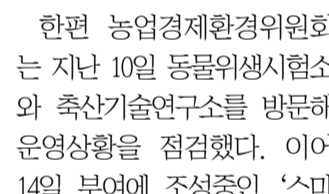
김명선 의원



김기서 의원



김명숙 의원



김영권 의원



방한일 의원



양금봉 의원

한편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14일 부여에 조성중인 ‘스마트 원예단지’를 방문했다.

##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

###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비롯해 의견제시 및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날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

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원안 동의해 심사를 완료하였고, ‘재난안전실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동의해 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효성이

는 세부 안전조치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및 대집행비용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재원 확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스마트 도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이계양 의원(당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해양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해양 관련 조례



장승재 위원장



전익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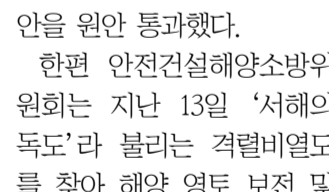
정광섭 의원



김대영 의원



김형도 의원



이계양 의원



조승만 의원



지정근 의원

안을 원안 통과했다.

한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13일 ‘서해의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찾아 해양 영토 보전 및 자주권수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등대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 교육 시설비 증가요인 집중 분석

###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2019년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조 771억 887만원이며, 이는 기존 예산 대비 625억9130만원으로 18.1%가 증액 편성된 규모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도 교육청

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현재 교육정책과 시급한 현안사업, 특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두드러진다”며 “집행부는 우선순위 기준과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충남도교육청 정책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폐교 재산 및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 매각 대금인 자산매각대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 의회에서 의결된 자산매각대 세입예산액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책정 시 정확한 통계와 비용추계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장



한국동 의원



김석곤 의원



이종화 의원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공주1)



김영수 의원



김은나 의원



조철기 의원



홍기후 의원

지 않은 학교지원과 교육급여 사업에

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





# “친환경적인 금강 발전모델 필요”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으로

### 금강특위, 금강수질 개선 촉구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논산1·이하 금강특위)는 지난 16일 금강주변 5개 지역을 방문해 각종 시설과 수질 등을 점검 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금강특위는 금강권 갯벌과 토사 퇴적, 담수호 오염, 회귀성 어류 생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방문 결과 금강하굿둑과 금강호의 퇴적은 인근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항구 기능을 막고 있었다. 또 담수 오염은 농업 공업용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고, 생물자원의 생태환경을 위협하고 있었다.

오인환 위원장은 “금강권역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퇴적물의 오염 상황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농어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이해 관계



금강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금강하굿둑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를 떠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하고 금강권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항구적인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부위원장(서천2)은 “갯벌 퇴적으로 항구기능의 소실과 김 양식장 피해개선을 요구했으며, 조길연 위원(부여2)은 수막재배 농가와 과거 극심했던 가뭄에 대한 대책을, 김기서 위원

(부여1)은 회귀성 어류(장어 및 참게 등)의 생태환경 개선과 담수 수질 개선을, 방한일 위원은(예산1)은 금강주변 농민들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요구했다.

금강특위는 이번 현장방문 결과와 각종 모니터링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 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디자인 관점에서 행정서비스 혁신

### 한영신 의원, 연구모임 본격 가동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을 본격 가동하며 도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를 맡고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사례 연구모임’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3월 창립총회 개최 후 처음 열린 이번 연구모임은 행정서비스 혁신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영신 의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외 행정 서비스 혁신사례 등의 분석 ▲역동적인 혁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례발표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 태도변화 및 방법 등과 관련해 토론을 펼쳤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창립총회 시 나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변화 시켜야 한다는 공통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우선 The DNA 사회혁신랩 전운숙 실장이 ‘충남도서관 고객 경험 등 서비스 디자인 관점의 사례연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충청남도 혁신정책팀 한미라 팀장은 ‘주민주도 소방현장 문제점 발굴 개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 관점에서 본 행정혁신과 관련해 참석자들 간의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영신 의원은 “사용자에게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촉구

충남도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1)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총 사

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한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교설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관련기관의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실정

으로, 이는 심사 기준을 100억원으로

한정한 교육행정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가 수차례 재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낭비와 재심사로 인해 사업 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각 시·도마다 교육여건이 다른 실정을 고려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300억 원으로 완화해 균형있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자율성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보령1)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서해안에 설치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미세먼지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김한태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수집·분석·관리와 더불어 효율적인 국가 미세먼지 정책개발 지원 및 효과검증을 위한 정보관리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

또한,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대산 석유화학공단, 당진 제철단지 등 대규모 배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은 “국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최적지인 충남 서해안 지역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도록 관련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방헬기 추가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는 김형도 의원(논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형도 의원은 결의안에서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있는 유인도서가 서해에 산재해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1대 뿐인 소방헬기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이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역할과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연간 정기 검사와 정비로 90여일이 소요되어 출동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항공



김형도 의원

대응력 강화 및 상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헬기 추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충남 소방헬기는 육상 구조 활동이 힘든 산악이나 해상, 도서 지역의 인명 구조, 산불 진압, 주·야간 응급환자 이송, 조난자 수색·정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충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소방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남소방헬기는 2015년 11월 도입된 다목적 소방헬기로 지난해 23차례 출동해 67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 충남도 새마을회 발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이 지난 9일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새마을회’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청남도 새마을회 임동규 회장은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자원봉사는 충남도민”이라며,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을 위해 많은 희생과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 새마을기관 사업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이공휘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공휘 의원

이공휘 의원은 “평소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봉사과 희생정신에 늘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왔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새겨듣고 향후 의정반영을 위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원시론

## 학생 행복지수 1위, 충남교육 미래 밝다



김동일 의원 (공주)

충남도의회원이 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짐하는 보람된 나날이었다고 평가해 본다.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은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교육의 미래이다. 이러한 구호에 걸맞게 충청남도는 지난 4년간 학생 행복지수 전국 1위를 기록해 왔다. 이 지면을 빌려 충남교육현장을 이끌어 오신 약 3만2000여 명의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계기로 학생 행복지수 1위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은 어떨까.

더 행복한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 철학과 방향도 변한다. 최근에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우리 충남교육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의 뒷받침 없이는 창의성은 물론 미래역량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학력 내실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역리더’ 키우기이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복지’ 아래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충남교육이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충남리더를 키우는 정책들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등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국제사회를 이끌고 세계의 학생들과 호흡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지역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일부 우수학생들에게 편중된 교육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 다만 영재 발굴이 충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을 키우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남이라는 지역적 토대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키우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필자도 학생 행복지수 1위 충남을 이어나가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될 것을 다짐해 본다.



# 충남도서관 개관 1년... '문화 랜드마크' 비상

충남도서관이 충남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비상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4월 25일 문을 연 충남도서관의 개관 1주년 운영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개관 1년 동안 충남도서관을 찾은 방문객은 총 35만 명에 달했고, 650차례에 가까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도민 눈길과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실상부한 충남 지식의 보고이자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한 충남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소개한다.

/김혜동 khd1226@korea.kr



## 도서관 운영성과

### 이용자 현황 (일평균은 운영일수 298일 기준으로 계산)



• 방문자수 : 총 34만8561명  
• 일평균 : 11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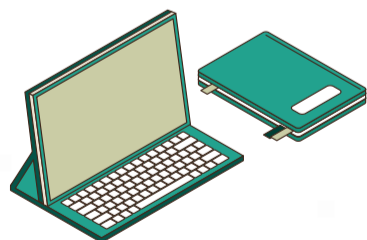


• 회원가입 : 1만8473명  
• 일평균 : 62명(운영일수 기준)

### 장서 현황 (19만3096권, 점)



• 도서 : 11만2406권  
(국내 단행본, 국외 단행본, 백제학자료, 충청학자료 등)



• 비도서 : 8만690점  
(전자책 78,377 COPY, DVD 등 2,313점)

### 대출 현황 (일평균은 운영일수 298일 기준으로 계산)



• 대출자수 : 8만9875명 / 일평균 302명  
• 대출권수 : 27만3982권 / 일평균 919권  
• 대출증 발급 : 1만5674명 / 일평균 53명

## 대출도서 순위

(※도서명/저자/출판사)

### 인기대출도서 베스트 5 (일반)

- 1 붉은 물빛의 레이디 / 서이나 / Muse  
외과의사 엘리제 / 유인 / 위치
- 2 살인자의 기억법 / 김영하 / 문학동네
- 3 우아한 짐승과의 결혼 / 이희경 / 우신
- 4 놓지마 정신줄.5 / 나승훈 / 웹툰박스  
매스캐레이드 이브 / 허가시노 게이고 / 현대문학  
항공기 서브 시스템 / 이부일 / 경문사  
폭군의 신부 / 김청아 / 로코코
- 5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 이도우 / 시공사



### 인기대출도서 베스트 5 (어린이)

- 1 호주에서 보물찾기 / 강경호 / 아이세움
- 2 도티&잠뜰 하우머치별에서 부자되기 / 정윤채 / 대원키즈
- 3 태국에서 보물찾기 / 강경호 / 아이세움
- 4 터키에서 보물찾기 / 강경호 / 아이세움  
폴란드에서 보물찾기 / 강경호 / 아이세움
- 5 도티&잠뜰 브리티니 왕국의 비밀 / 김현수 / 대원키즈

